

수피즘과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해 비교 : 알 가잘리와 바울의 이해를 바탕으로

김의창*

I. 들어가는 말

II. 수피즘과 알 가잘리

III. 알 가잘리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해

IV.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해

V. 두려움에 대한 수피즘과 기독교의 이해 비교

VI. 나가는 말

* 햇볼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

■ 한글초록

미로슬라브 볼프는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신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볼프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의 공존을 위한 협력의 열쇠가 신에 대한 두려움 혹은 경외심에 있다고 제안한다. 본 논고는 이슬람의 신비주의 전통인 수피즘 가운데에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이해가 존재하는지 알 가잘리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한 이와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볼프의 제안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슬람과 기독교의 이해를 바르게 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알 가잘리와 바울의 이해에는 유사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둘 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자세로 이해한다는 점과, 이 두려움이 마지막 심판을 감당하는 하나님에 대한 종말론적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울러 알 가잘리와 바울의 두려움에 대한 이해에는 차이점도 발견된다. 알 가잘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한다.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갖춰야 하는 덕목이고, 극복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수피즘과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해 가운데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 비로소 두 집단의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주제어: 수피즘, 알 가잘리, 바울, 두려움, 희망, 경외, 종말론

I. 들어가는 말

2020년에 범세계적으로 유행한 Covid-19의 여파로 세계는 미증유의 상황을 겪게 되었다. Covid-19는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조를 비대면 사회 구조로 강제적으로 변화시켰고, 사람들은 뉴노멀(new normal)이나 언택트(untact)라고 명명된 새로운 시대 가운데에서 적응하게 되었다. 그런 강제된 변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Corona Blue)라고 일컫는 마음의 답답함,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¹ 그 해결 방안들 중 하나는 “마음 챙김”(mindfulness)과 같은 명상의 방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물리적인 방역뿐만 아니라 명상을 통한 심리적인 방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 특정한 종교에 집중하기 보다는, 여러 종교들을 망라해서 그 가운데 있는 명상이나 묵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²

-
- 1 “코로나 블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기사들을 참조하라. 김선영,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에 ‘코로나 블루’ 급증…정신과 전문가가 알려준 극복 비결,” 중앙일보, https://jhealthmedia.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21636 (2021년 1월 23일 접속); 배승민, “코로나블루 시대, 심리방역을 위한 9계명,” MedicalTimes,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37402> (2021년 1월 23일 접속); “국민 40.7% ‘코로나19로 우울, 불안 경험!,’” Medical News, <https://mdon.co.kr/mobile/article.html?no=30024> (2021년 1월 23일 접속); 최시웅, “코로나블루 이어 이젠 코로나레드 현상 ‘분노감이 치민다,’” 영남일보,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121010002810> (2021년 1월 23일 접속).
 - 2 Covid-19시대의 “마음 챙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들을 참조하라. Rae Jacobson, “How Mindfulness Can Help During COVID-19: Tips for calming anxiety during a difficult time,” Child Mind Institute, <https://childmind.org/article/how-mindfulness-can-help-during-covid-19/> (2021년 1월 23일 접속); 이소연, “코로나 블루, 명상으로 힐링…비즈니스 효율성 높여,”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3/2020120302556.html (2021년 1월 23일 접속); 임지영, “코로나 블루 극복! ‘명상’으로 마음 챙김 하세요,” 서울시 뉴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85069> (2021년 1월 23일 접속).

이런 시기 가운데 이미 21세기에 들어와서 높아진 이슬람의 신비적 전통인 수피즘(Sufism)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되었다.³ 오늘날 이집트에는 76개의 수피 종단이 있고 8,000만 인구 중에서 1,100-1,500만 명의 수피 무슬림들이 매주 따로 모이고 있다고 한다.⁴ 무엇보다 현대에 들어와서 율법적이지 않고, 테러를 부추기지도 않는 수피즘은 이슬람의 여러 종파 중에서 가장 온건한 색채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⁵ 이미 수피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유네스코(UNESCO)가 2007년을 대표적인 수피이자 시인이었던 마울라나 잘랄 앳딘 발키 루미(Mawlana Jalal-ud-Din Balkhi-Rumi)의 탄생 800주년을 기념해서 “세계 루미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of Rumi)”로 정한 것에서 잘 나타났다.⁶ 또한 최근의 수피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보편적 종교성과 동시대인들의 영적인 필요에 의해서 수피즘 운동이 이슬람 지역과 서구에서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⁷

본고는 이런 수피즘에 대한 관심을 배경으로, 아부 하미드 알가잘(Abu Hamid Muhammad al-Ghazali)의 저서 『종교학의 소생(iḥyā’ ulūm ad-dīn)』을 통해서 첫째, 두려움에 대한 수피즘의 이

3 예를 들어 다음의 인터뷰 기사를 참조하라. Shumaila Hemani, “As a Sufi singer, I believe the sounds of world religions can cultivate compassion during COVID-19,” The 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as-a-sufi-singer-i-believe-the-sounds-of-world-religions-can-cultivate-compassion-during-covid-19-138045> (2021년 1월 23일 접속)

4 공일주, 『이슬람의 수피즘과 수쿠크』(서울: CLC, 2011), p.9.

5 Ibid.

6 “UN culture agency celebrates life of poet, philosopher and spiritual leader Rumi,” UN News, <https://news.un.org/en/story/2007/09/230372-un-culture-agency-celebrates-life-poet-philosopher-and-spiritual-leader-rumi> (2021년 1월 23일 접속).

7 김아영, “이슬람의 신비적 측면: 수피즘(Sufism)의 현대적 이해,”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13, no.1 (March, 2020), p.9.

해를 연구하고, 둘째, 두려움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본고는 일차적으로는 두려움에 대한 이슬람과 기독교의 이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슬람과 기독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본고의 이차적인 목표가 있다.

수피즘의 이해를 위해서 알 가잘리를 선택한 이유는 알 가잘리를 통해서 온건한 형태의 수피즘이 정통 이슬람에 통합되었고,⁸ 그의 수피즘이 오늘날 수피 교리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⁹ 또한 알 가잘리의 많은 저서들 중에서 『종교학의 소생』을 선택한 것은 이 책에서 수피즘의 체계화가 그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이고,¹⁰ “그 논리적 설득력과 서술의 평이함으로 말미암아 신비주의를 적정 수준에서 인정하는 온건한 이슬람 주류의 교과서로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이다.¹¹ 수피즘과 비교하여 기독교의 이해를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에서 바울을 선택한 것은, 알 가잘리와 마찬가지로 바울 또한 자신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고, 기독교 신학의 윤리와 그의 실천에 관련해서도 큰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초대 기독교의 주축이 되고, 이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정경화와 더불어 기독교 신학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현대의 기독교는 교회의 구성이나 신학적 토대와 실천을 사도 바울과 그가 세운 교회들로부터 전승 받았다고 볼

8 Ibid., p.30.

9 공일주(2011), p.79.

10 Annemarie Schimmel, *ISLAM: An Introduction*, 김영경 옮김, 『이슬람의 이해』 (왜관: 분도출판사, 2006), p.159.

11 Ibid., p.160.

수 있다.¹²

특별히 본 고가 수피즘과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그의 저서에서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의 신에 대한 믿음을 분석 비교하면서, 두 종교의 신에 대한 두 그룹의 이해가 서로 겹친다고 주장한다. 볼프는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갈등이 서로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하고, 따라서 서로의 공존을 위한 열쇠가 “신에 대한 두려움 혹은 경외심”에 있다고 제안한다.

모든 사람이 입으로는 신을 말하지만, 종교 안에 신은 없다... 그 결과는? 각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오직 자신들의 상처와 희망만 생각한다. 누구도 상대방이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내 친구는 자기 집착과 상대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치유 받기 위해서는 사랑과 경외심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분명, 진리와 정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내 편만 보호하고 그 힘을 강화하려는 강력한 기제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려고 명령하실 것이다.¹³

다시 말하자면, 볼프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집단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기독교와 이슬람이 각기 예배하는 유일신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두려움”은 무슬림과 기독교인들 모두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론(神論)에 관한 볼프의 주장이 타당

12 이승현, 『신약주해』 (서울: 킹덤북스, 2016), 318.

13 Miroslav Volf, *Allah: A Christian Response*, 백지운 옮김, 『알라: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은가?』 (서울: IVP, 2016), p.315.

한지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¹⁴ 기독교와 이슬람에서 신에 대한 이해가 실천의 영역에서 두 가지의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고, 그 중심에 “신에 대한 두려움” 사상이 있다고 하는 볼프의 주장은 흥미롭다. 따라서 볼프는 “1) 기독교와 이슬람이 신에 대해 가르치는 규범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한, 기독교인과 무슬림은 공통의 신을 믿는다. 2) 신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한, 기독교인과 무슬림은 동일한 참 신을 예배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두 집단의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한다.¹⁵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단순한 도덕성이나 가장 큰 신비 앞에서 고양된 경외심이 아니며, 신앙의 핵심은 ‘주를 경외함’에 있다”는 칼 바르트의 말을 인용한다.¹⁶

이런 볼프의 주장에 대해서 본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종교 생활의 실천 영역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이슬람과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동일하다는 그의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알 가잘리와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이슬람의 수피즘과 기독교의 이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¹⁷

14 볼프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론을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요약한다. 1) 신은 오직 한 분이다. 2) 신은 신이 아닌 모든 것을 창조했다. 3) 신은 신이 아닌 다른 모든 것과 다르다. 4) 신은 선하시다. 5) 신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 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6) 신은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앞의 책(2016), 147. 그러나 볼프는 기독교의 신론이 삼위일체(trinity) 교리, 특히 기독교론(Christology)과 뗄 수 없는 사실을 간과한다. 이슬람의 신에 대한 이해의 공통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의 유일성과 단일성을 강조한 나머지, 기독교론을 배제한 것은 볼프의 주장에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의 유일신과 삼위일체론에 대한 볼프의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Ibid., pp.171-198.

15 Ibid., p.165.

16 Karl Barth, “Biblical Questions, Insights, and Vistas,” in *The Word of God and the Word of Man*, trans. Douglas Horton (New York: Harper, 1956), p.69.

17 본 고에서는 볼프의 사용에 따라서,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

II. 수피즘과 알 가잘리

수피즘을 나타내는 용어는 *tasawwuf*인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수피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양털을 의미하는 아랍어 *suf*에서 유래하였는데, 무슬림 금욕주의자들이 걸쳤던 거친 양털 옷에서 유래한다. 수피즘은 불경한 무슬림 통치자들의 풍요로움에 대한 반향으로, 검소한 생활방식을 택한 금욕주의자들을 통해서 생겨났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세상과 관계를 끊고 신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모색했다. 그들은 거친 양털로 된 옷을 입었기에, “양털 옷 입은 사람들” 혹은 수피라는 별명이 생겼다. 그러다가 역사 가운데에서 이 용어는 이슬람의 신비주의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¹⁸ 수피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상징적으로 타리까(*tariqa*, 좁은 길)라고 일컫는다.¹⁹ 이러한 “길의 이미지”는 이슬람에서 샤리아(*Shari'a*)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이는 샤리아가 무슬림의 일상 생활 가운데 모든 규칙을 제공하는 “올법의 넓은 정도(正道)”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샤리아의 넓은 길과 대조되어 타리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좁은 길로 이슬람 가운데에서 이해되었다.²⁰

이슬람의 초기부터 존재하던 수피즘은 역사 가운데 핍박과 박

슬람의 신(알라)이나 기독교의 신(하나님)에 대한 호칭의 구별 대신 “신” 혹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8 Carole Hillenbrand, *Islam: A New Historical Introduction* (London: Thames & Hudson, 2015), p.189.

19 이슬람 수피즘 가운데에는 여러 종류의 타리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Qadiriyya, Naqshbandiyya, Mevlevis, Bektashiyya, 그리고 Rifa'iyya가 있다. 수피파의 모든 종단이 같은 계율 단계를 따르지 않고, 각 종단은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 놓고 있다. 각 타리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Ibid.*, pp.210-213.

20 *Ibid.*, p.189.

해도 받았고, 많은 경우에 이슬람의 정통 교리와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많은 위대한 무슬림의 사상가들은 수피였는데, 그들은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터키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곳으로 가서 이슬람 교리를 전하였고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세의 오스만 제국 하에서는 수피즘이 널리 전파되었는데, 수피 지도자들은 제국으로부터 후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군사 작전에도 동행하였다.²¹ 무엇보다 수피즘은 이슬람의 복잡한 신학적 논쟁이나 법률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무슬림들에게 개인적인 위로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슬람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부 하미드 알 가잘리(Abu Hamid Muhammad al-Ghazali, 1058-1111)는 수피즘과 정통 이슬람 철학, 신학을 접목시키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수피즘을 정통 이슬람 신학 안에 단단하게 접합시킨 공헌을 한 인물이다.²² 그는 1058년 페르시아 동부의 투스(Tus)에서 태어나서 니자푸르(Nizapur)의 니자미야(Nizamiyah) 학원에서 법학으로 시작하여 신학, 그리고 알파라비(al-Farabi)와 이븐 시나(Ibn Sina)의 신플라톤주의로 대표되는 아랍 철학 등 다양한 학문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서 젊은 나이에 바그다드의 니자마야 학원의 교수로 임명되었다.²³ 그는 술탄과 칼리프의 친구이자 조언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에 알 가잘리는 알 수 없는 내적인 병을 앓게 되었다. 알 가잘리는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신이 나의 혀에 자물쇠를 채웠다”라고 회고한다.²⁴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알 가

21 Ibid., p.190.

22 공일주(2011), pp.59-60.

23 김아영(2020), p.27.

24 Richard J. McCarthy, *Freedom and Fulfillment: An Annotated Translation of*

잘리는 바그다드를 떠나 10년간 수피가 되어 다마스쿠스, 예루살렘, 그리고 메카를 방랑하였다. 그는 신을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수피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수피가 되어 평생을 수피즘에 몰두하였다.²⁵

수피가 된 알 가잘리는 다마스쿠스(Damascus)의 우마이야(Umayyad) 사원에서 지내며 매일 기도와 묵상, 집필로 하루를 보냈다. 결국 알 가잘리는 오랜 방황을 끝내고 건강을 회복하여 돌아오게 되는데, 이후 그의 학문적 방향성은, 증거와 논증과 같이, 이성을 통한 연구와 더불어 즉각적 체험을 통해 무아경과 이것에 수반되는 도덕적 변화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한다.²⁶ 그의 노년에 알 가잘리는 수피들을 위한 수도원을 세우고 그 속에서 그는 개인 명상과 저술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는 고향인 투스에서 모여드는 제자들에게 수피의 길인 타리까를 전수했고 111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전통적인 올라마들의 신학과 수피 이론을 융합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²⁷ 무엇보다 알 가잘리의 큰 업적은 그가 순니 법학자들, 알 아샤리파의 신학자들, 그리고 수피들, 이렇게 세 그룹의 핵심적 이론, 원리, 요소들을 융합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그의 노력은 『종교학의 소생(*iḥyā' ulūm ad-dīn*)』이라는 책으로 집대성되어 출판되었다.²⁸

『종교학의 소생』은 그 제목이 말해주듯, 종교학 혹은 신학의 소생,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알 가잘리는 “신

Al-Ghazali's al-Munqidh min al-dalal and Other Relevant Works (Boston, MA: Twayne Publishers, 1980). Hillenbrand(2015), p.199에서 재인용.

25 Margaret Smith, *Readings from the Mystics of Islam* (Westport, CN: Pir Publications, 1994), p.39.

26 김아영(2020), p.28.

27 Ibid., p.29.

28 Ibid.

이 보기에 바람직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신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알 가잘리는 이 책 가운데에서 수피즘이 기존의 이슬람을 대체하는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 이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를 완성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는 “이슬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일부 수피들을 겨냥해서 모든 무슬림들은 신앙의 외적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들로는 충분히 신앙을 실천할 수 없으며 직접적이고 황홀한 체험을 통하여 내면의 빛을 밝혀야함을 강조하였다.”²⁹ 알 가잘리의 설명에 따르면 “신이 보기에 바람직한 삶”은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이슬람(*islam*, 절대 복종), 이만(*iman*, 신앙), 그리고 이흐산(*ihsan*, 신을 대면하듯이 섬기는)이 바로 그것이다.³⁰ 특히 마지막 태도인 매 순간 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자세는 비단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비종교적인 행위에도 요구되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해에 따라서 『종교학의 소생』은 총 4권(quarters), 40장(chapters)으로 (매 권마다 10장으로) 이루어졌다. 『종교학의 소생』의 1권은 “예배에 대한 것”(on worship, *al-‘ibādāt*)이고, 2권은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on the practices, *al-‘adāt*)이고, 3권은 “도덕적인 덕목”(on the mortal vices, *al-muḥlikāt*)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첫 3권은 교리, 정결 의식, 기도, 금식, 순례, 꾸란 암송과 같은 종교적 행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기도, 상거래, 여행 등과 같은 실천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 4권에서 가서야 알 가잘리는 “구원하는 덕목들”(on the saving virtues, *al-munjiyāt*)을 설명하면서, 가난, 인내, 하나

29 Ibid., p.30.

30 Shimmel(2006), pp.159-160; 김아영(2020), p.30.

님께 대한 신뢰, 갈망,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지식 등 좀더 명백히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주제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마지막 장인 40장은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on the remembrance of death and what is after it), 죽음을 맞이해서 구도자가 취해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³¹

Ⅲ. 알 가잘리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해

수피즘은 그들의 영혼이 신께 도달하는 과정의 신비적인 여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표화 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비록 수피들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수피의 길에 여러 계층의 “단계들”(stations, maqam)이 있다는 점에서 수피즘은 동일하게 이해한다. 이 과정은 “영적인 사다리”(spiritual ladder) 위의 걸음과 비교되며 “신비적인 상태들”(mystical states, *ahwal*)과도 비슷하다.³² 그 가운데에서는 꾸란에서 명명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계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회개”(repentance), “분투”(striving), “두려움”(fear), “감사”(gratitude), 그리고 “인내”(patience)의 단계들이다. 수피들은 개인의 노력으로 이러한 단계들에 도달할 수 있고, 또한 그 단계들 가운데에서 머무를 수 있다고 믿었다.³³ 수피즘의

31 특별히 쉴멜은 『종교학의 소생』 가운데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인내와 성숙을 의미하는 숫자이며, 수피가 은둔 속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기간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정도의 차이를 의미하고, 또한 무함마드의 약호인 밌(M)자에 부여된 숫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Shimmel(2006), p.160.

32 수피들의 영적 도정은 종단에 따라 수피들에 따라 43 단계들과 3개의 상태들로 구분되기도 하고(‘Abd al-Karim Qushayri), 때로는 7 단계들과 10개의 상태들로 분류된다(Abu Nasr al-Sarraj), Hillenbrand(2015), p.200.

33 Ibid,

가르침 가운데서 신에게 도달하는 여러 단계들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알 가잘리도 자신의 책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한다. 신이 보기에 바람직한 삶 가운데 가져야 하는 자세들 중의 하나로 가운데에서 알 가잘리는 “두려움”을 언급하는데, 『종교학의 소생』의 제 4권, “구원하는 덕목들” 가운데, 33장 “희망과 두려움”(on hope and fear)에서 이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33장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에 대한 알 가잘리의 이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하나님에 대한 종말론적 두려움

첫째로, 알 가잘리는 모든 사람은 신이 보기에 바람직한 태도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무함마드의 말을 인용하여 알 가잘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고 설명한다.³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기에 바람직한 태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가리킨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에 사람은 다른 종류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알 가잘리의 설명은 그 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었다. 이

34 Imam Al-Ghazālī, *MUKHTAṢAR: ihyā' 'ulūm ad-dīn*, translated from the Arabic and edited by Markan Khalaf, 2nd ed. (Lympia/Nikosia, Cyprus: Sphor Publishers, 2014), p.371. 이후 이 책에서의 모든 인용은 필자의 번역.

미 9세기 무렵의 수피들은 “내적 방식” 즉 신을 향한 영적 여행이라는 교리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자아라고 하는 주체를 소멸시키고, 영적 체험의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금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신에 대한 “두려움”을 고양시켜야 했다.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수피들은 신의 곁에 다가가면 다가갈 수록 자신의 자아는 점점 소멸되고, 자신이 신에게 완전히 흡수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고, 그때까지 끊임없이 마음의 욕망을 다스렸던 것이다.³⁵

특히 알 가잘리가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거대한 신적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흔히 “경외”[reverence]라고 표현되는)을 가리키지 않는다. 알 가잘리가 설명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곧 “(종말에 있을)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두려움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 괴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에 대한 비방을 일삼는 비참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종말에 있을 심판 가운데 심판자로서 계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알 가잘리는 설명한다.³⁶

알 가잘리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설명은 꾸란에 나타나는 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꾸란에서 종말의 날은 “평가의 날,” “평가

35 김중순, “신앙과 종교의 긴장관계로서 수피즘,” 『수피즘: 실크로들을 읽는 문화코드』 (서울: 소통, 2016), p.26.

36 이러한 알 가잘리의 종말론적인 강조는 『종교학의 소생』의 마지막 40장이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것과 그 안에서 알 가잘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구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의 시간,” “마지막 날,” “결정의 날,” “부활의 날,” “집회(assembly)의 날” 등으로 묘사된다. 이 날에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고(82:1-5),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된다(3:8-9). 각 사람의 행적은 그 무게로 평가받게 되는데 자신의 행한 선행의 무게가 악행의 무게보다 무거운 자들은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가서 낙원과 모든 복을 상으로 받게 된다. 반대로, 악행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왼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지옥의 불 가운데 처하게 된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관점은 꾸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그 종말의 시점이나 종말의 연대기적 순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날이 갑자기 닥쳐올 것을 설명하면서 그 임박성을 강조한다(16:77). 그리고 이러한 종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이끌어 내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다(75:6-11). 마지막 날에 무슬림의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바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42:53).³⁷

이처럼 심판의 날에 대한 꾸란의 종말론적 관점은 수피즘의 기원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수피즘의 기원이 된 금욕주의자들은 종교적 규례들을 지키는 것으로는 자신들의 종교적 필요를 채우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 이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였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을 추구하였다. 어떤 수피들은 은둔하여 금식과 기도와 명상을 하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ulama*’ 종교적 학자들) 모스크나 칼리프의 궁정 가운데에서 가르치기도 하였다. 수피들은 기본적으로

37 Hillenbrand(2015), p.67.

그들의 죄에 대한 무거운 중압감을 느꼈고, 지옥에 대한 명백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³⁸ 예를 들어, 7-8세기에 활동하였던 무슬림 신비주의자 하산 알 바스리(Hasan al-Basri, 642-728)는 자신의 설교 가운데에서 심판의 날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함께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아담의 아들들이여...너희들은 홀로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무덤에 홀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홀로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은 홀로 심판 받을 것이다!”³⁹

2. 희망과 두려움

두려움에 대한 알 가잘리의 이해 가운데 두 번째 특징은 그가 “두려움”을 “희망”과 하나의 쌍을 이루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데에 있다. 알 가잘리는 장차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이해하고, 반대로, 장차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는 것들 가운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설명한다.⁴⁰ 『종교학의 소생』 33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발췌(excerpt) 부분에서 알 가잘리는 희망과 두려움의 밀접한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진실로, 희망과 두려움은 사람이 높은 단계(Exalted Station)로 오르는 두 개의 날개들(two wings)이다. 또한 낙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계속해서 장애물이 나타나는, 두 개의 언덕들(two

38 Ibid., p.190.

39 Hellmut Ritter, “Studien zur Geschichte der islamischen Frömmigkeit,” *Islamica*, xiv (1925), p.21, Hillenbrand(2015), p.191에서 재인용.

40 Al-Ghazālī(2014), p.366.

mounts)이다. 마음의 무거운 짐과 육체의 고난으로 점철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비로운 자의 근접(proximity)과 낙원의 초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희망의 존재이다. 또한 [희망은] 지옥의 불과 고뇌로부터 보호하고, 가장 고결한 욕구와 놀라운 자상함으로 향하게 만들고, 두려움의 채찍과 질책의 공격들로부터 구원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희망과 두려움] 성질과 강점들, 또한 서로 대적하고 양보하지 않는 그들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⁴¹

이처럼 두려움과 희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자와 낙원으로 인도하는 두 개의 방법이고 수피즘에서 단계들(stations)에 이르는 길이다.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희망의 대상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희망은 신이 부여하는 죄사함에 대한 것이라고 알 가잘리는 설명한다(꾸란 39:53).

이러한 점에서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희망 또한 종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지막 “부활의 날”(the Day of Resurrection)에 추수가 있을 텐데, 그 때 세상에 의해서 가리워지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진 사람은 그 마음이 “소금기 가득한 밭”(saline soil)과 같아서 열매가 없을 것이고 그러한 상태는 “헛된 영광”(vainglory)과 같다.⁴² 반면에 좋은 토양과 충분한 물과 좋은 씨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추수를 기다리면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폭풍과 충해(蟲害)를 물리쳐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데, 이 상태를 “희망”이라고 한다.⁴³

41 Ibid.

42 참고로 『종교학의 소생』의 3권 마지막 장(30장)이 “헛된 영광에 대한 반대”(on the depreciation of vainglory)에 대한 것이다.

43 Ibid., p.367.

그러나 알 가잘리는 하나의 쌍을 이루는 이 두 개의 태도들은 그 가치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희망은 절대자에게 더 가깝게 이끌지만, 두려움은 절대자로부터의 도피를 유발하기 때문에, 희망과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단계로 오르게 하는 두 개의 날개이지만, 분명히 희망은 두려움보다 더 “우월”(superior)하다. 그러면서 알 가잘리는 임종을 앞둔 어떤 사람을 만난 무함마드의 일화를 인용한다.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선지자의 안부에, 그 사람은 “나는 나의 죄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나의 주의 긍휼을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 두 개의 감정[두려움과 희망]은 종의 마음에 같이 나타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그가 희망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평온하게 만들 때에만 가능하다.”⁴⁴ 이 예화에서 알 수 있듯이, 알 가잘리가 제시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낮추고 평온하게 만들어서 줄여 나가야 하는, 혹은 극복해야(overcome) 하는 요소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은 순종하지 못하거나 그릇된 것을 욕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우월한 방법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희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줄 것이라는 희망이다. 알 가잘리는 꾸란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의를 뒷받침한다. “...나의 종들이여, 알라의 자비를 바라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알라께서는 죄악을 관대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참으로 알라께서는 관대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시다”(39:53).⁴⁵ 또한 “모든 하늘이 위에서 갈라지려 할 때 천사들

44 Ibid, p.368.

45 본 논고에서 인용된 꾸란은 김용선 번역, 『코란(꾸란)』(서울: 명문당, 2019)에서 발췌하였다.

은 주의 영광을 찬미하고,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를 빈다. 진실로 알라께서는 관용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42:5). 알 가잘리는 또한 “하나님의 긍휼은 그의 분노보다 앞선다”고 설명하는 무함마드의 말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관련된 “희망”이 하나님의 분노와 관련된 “두려움”보다 더 우월하다고 설명한다.⁴⁶

3.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두려움

셋째로, 알 가잘리는 두려움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원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라고 이야기한다. 더불어, 두려움은 믿는 자들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알 가잘리는 마지막 날, 곧 부활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 꾸란 39:16을 인용한다. “그들 위에는 불의 천개(天蓋)가 있고 밑에는 불의 바닥이 있다. 이것으로 알라께서는 그 종들을 두렵게 하신다. ‘아, 나의 종들이여, 나를 두려워하라.’ 알 가잘리는 하나님께서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불의 그림자와 같은 심판을 창조하였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두렵게 한다고 설명한다.⁴⁷ 다시 말하자면 종말에 있을 심판은 장차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창조된 것이지만, 막상 믿는 자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39:16에서 언급된 “그들”은 39:15의 “알라를 제쳐 놓고 좋아하는 것을 숭배하는 너희들”이다. 알라를 멀리하는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심판이 예비되었지만, 알

46 Al-Ghazālī(2014), p.370.

47 Ibid., p.369.

라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종들의 마음을 두렵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종들에게 알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종용한다. 39:16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꾸란 번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 이슬람 국제출판국에서 나온 한글 번역본에는 “오 나의 종들아! 나를 너희들의 보호자로 여기라”고 되어 있다.⁴⁸ 영어 번역도 “두려워 하라”로 번역한 번역본과⁴⁹ “보호자로 여기라”고 해석한 번역본⁵⁰ 두 개 모두 존재한다. 어느 번역이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심판이, 오히려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적합한 태도의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그의 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움의 태도를 지닌 종들에게는 최후의 상급이 약속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몇 겹이고 쌓여진 저택을 받는다...이것이 알라께서 하신 약속이시다. 알라께서는 약속을 어기시는 일이 없으시다”(39:20).

그러나 알 가잘리는 두려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신을 지향하는 여정의 초반에 있는 자들에게도 있다고 설명하는데, 곧 두려움과 희망은 “진리의 아름다움”(the Beauty of Truth)이 아직 마음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자들을 인도하는 두 개의 고삐들(two reins)이라고 묘사한다. 그리고 이 진리의 아름다움을 목도한 사람은 두려움과 희망 모두를 넘어서게 된다(rises above).⁵¹ 다시 말하자면, 두려움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방식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48 이슬람 국제 출판국, 『코란』 (서울: Po Chin Chai Printing, 1988), 39:17.

49 “O My Servants! Reverence Me!” *The Study Quran: A New Translation and Commentary*, edited by Seyyed Hossein Nar (NY: HarperOne, 2015).

50 “O My servants, keep from disobedience to Me in reverence for Me and piety and so deserve My protection,” Ali Ünal, *The QUR’AN with Annotated Interpretation in Modern English* (NJ: The Light, 2006).

51 Al-Ghazālī(2014), p.370.

인 것이고, 영원하고 궁극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알 가잘리는 알 와시티(al-Wasiṭī)의 말을 인용하며 “진리를 깨닫는 사람에게서는 두려움이나 희망이나 더 이상 가치(merit)가 없다”고 설명한다.⁵² 다시 말해서, 알 가잘리에 따르면, 두려움은 종말의 심판에 대한 것이고, 종말의 심판은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믿는 자들의 바른 태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궁극적인 태도이기 보다는 극복하고 넘어서야 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IV.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해

다음으로 본 논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바울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바울의 이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구약의 전통 가운데 있는 두려움

첫째로,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신약 전반에 나타나는 것이고 특별히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구약에 나타나는 “두려움”의 예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두려움은 거의 80%에 해당한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현현(顯現)이나,⁵³ 그의 성

52 Ibid.

53 예를 들어, 출 20:18; 신 5:5.

품이나,⁵⁴ 그의 이름이나,⁵⁵ 그의 행적이나,⁵⁶ 그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에⁵⁷ 대한 두려움 등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사람의 반응으로 묘사된다.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반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제시된다. 후자의 두려움은 성경에서 사람들을 순종으로 이끄는 “경외심”(reverence)으로 묘사된다.⁵⁸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동일시되고, 그가 명한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점에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벌에 대한 반응 대신, 경건한 태도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등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준다.⁵⁹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두려움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구약, 특히 신명기나 지혜 문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두려움의 태도는 “두려움이나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와는 구분된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⁶⁰

54 예를 들어, 출 15:11; 신 7:21; 10:17; 대상 16:25; 느 1:5; 4:8; 9:32; 욥 37:22; 시 47:3; 68:36; 76:8, 13; 89:8; 96:4; 단 9:4; 습 2:11.

55 예를 들어, 신 28:58; 시 99:3; 111:9; 말 1:14.

56 예를 들어, 출 34:10; 신 10:21; 삼후 7:23(= 대상 17:21); 시 65:6; 66:3; 106:22; 145:6; 사 64:2.

57 예를 들어, 욥 2:11; 3:4; 말 3:23.

58 H. Balz, G. Wanke, “φοβέω, φοβέομαι, φόβος, δέος,”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dited by Gerhard Kittel and Gerhard Friedrich, translated by Geoffrey W. Bromiley, 9 vol (Grand Rapids: Eerdmans, 1976), p.201.

59 이러한 점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워하다”는 다른 동사들과 병행해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랑하다”(신 10:12); “의지하다”(신 10:20; 13:5); “섬기다”(신 6:13; 10:12, 20; 13:5; 수 24:14; 삼상 12:14); “명령을 지키다”(신 5:29; 6:2; 8:6; 13:5; 17:19; 31:12); “길을 따라가다”(신 8:6; 10:12); “따르다”(신 13:4); “목소리를 청중하다”(신 13:4; 삼상 12:14); “규례를 지키다”(신 6:24).

60 예를 들어 지혜 문헌에서는 “하나님 경외”가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책들을 참조하라. H. Balz, G. Wan-

그리고 구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두려움의 이해는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나타난다.⁶¹ 이러한 신약의 이해는 성경 외의 문헌들에서 두려움이 주로 “계몽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몰아내야 하고 억압해야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과 차이를 나타낸다.⁶² 이처럼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자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갖춰야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점은 중요한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는 두 개의 종류가 있다고 이해하였다. 곧,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두려움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느끼는 “공포”(terror)였고,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두려움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경외”(reverence)라고 이해하였다.

ke(1976), p.202; H. P. Stähli, “**יָרָא**,”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edited by Ernst Jenni, with assistance from Claus Westermann, translated by Mark E. Biddle, 2 vol (Peabody, MA: Hendrickson, 1997), pp.576–577; H. F. Fuhs, “**יָרָא**,”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edited by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translated by John T. Willis et al. 6 vol (Grand Rapids: Eerdmans, 2006), pp.311–313.

61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참조하라. Siegfried Plath, *Furcht Gottes: Der Begriff yār'a im Alten Testament* (Stuttgart: Clauer Verlag, 1963); Joachim Becker, *Gottesfurcht im Alten Testament*, *Analecta Biblica* 25 (Rom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65); H. P. Stähli(1997), pp.568–578; H. F. Fuhs(2006), pp.290–315.

62 H. Balz, G. Wanke(1976), pp.195–196; Moisés Silva, “**φόβος**,”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edited by Moisés Silva, 4 vol (Grand Rapids: Zondervan, 2014) pp.610–611.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참조하라. Leland Ryken, “Fear,” *Dictionary of Biblical Imagery*, edited by Leland Ryken, James C. Wilhoit, and Tremper Longman III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8), p.277; Stanley E. Porter, “Fear, Reverence,”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edited by Gerald F. Hawthorne and Ralph P. Marti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3), p.291.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이러한 두 개의 구별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난다고 학자들은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스탠리 포터는 하나님의 두려움은 바울에게 있어서 두 개의 구별되는 본질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먼저 그것은 긍정적인 두려움을 의미할 수 있는데, 포터는 그것을 “건강한 두려움 혹은 경외심”(healthy fear of reverence)이라고 명명한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 대한 부정적 두려움인 “공포”(terror)와 분명히 구별된다고 논의하였다.⁶³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기인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공, 공포)은 부정적인 것이고,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지녀야 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공, 경외)은 긍정적인 것으로 이 두 개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이다.

2. 하나님에 대한 종말론적 두려움

비록 학자들은 바울이 두 개의 구별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한다고 하였지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것을 요구하면서도(고후 5:11; 7:1; 빌 2:12 등) 그 두려움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설명한다(고후 5: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⁶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63 Porter(1993), p.291.

64 개역개정에는 5:11을 시작하는 헬라어 접속사 οὖν(“그러므로”)가 생략되었다.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고후 5:10-11).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사역, 곧 사람들을 권면하는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 두려움은 바로 앞 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곧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⁶⁵ 이는 지금까지 학자들이 이해한 기존의 방식, 곧 두 개의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관점에 맞지 않는다. 곧 두 개의 종류의 두려움 가운데 부정적인 두려움은 종말론적 심판에서 비롯된 공포이고,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하는 긍정적인 두려움(경외)과 구별되는데,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믿는 자들(자신을 비롯하여)이 모두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를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바울은 롬 3:10-18에서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들이라는 점을 논의하면서 불의한 자의 특징으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묘사한다(3:18).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바울 자신을 비롯하여 믿는 자들의 바른 자세로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믿는 주체에 따라서 부정적인 두려움(믿지 않는 자들)과 긍정적인 두려움(믿는 자들)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

65 바울은 롬 14:10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이야기하였고, 롬 2:16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고후 5:10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가리킨다.

판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태도에 속한다.⁶⁶

3. 믿는 자들의 윤리적인 면에서 표현되는 두려움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표현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전 2:3);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음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고후 7:15);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엡 6:5);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골 3:22). 이와 같은 구절들은 바울이 서로에 대한 관계에 대한 윤리의 구심점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놓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66 필자는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두 개(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가 아니라 오직 하나(종말론적 심판으로부터 오는)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인식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고후 7:1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 인식의 관계, 그리고 율법의 성취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논의는 필자의 책을 참조하라. Euichang Kim, *The Fear of God in 2 Corinthians 7:1: Its Meaning, Function, and Eschatological Context*, *Library of New Testament Studies* 605 (London: T&T Clark, 2019), pp.1-10.

V. 두려움에 대한 수피즘과 기독교의 이해 비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수피즘과 기독교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는 분명히 유사점이 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유사하다. 수피즘과 기독교 모두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에 마지막 심판대에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한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긍정적 두려움이나 부정적 두려움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두려움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수피즘과 기독교의 이해는 유사하다. 이런 면에서 알 가잘리의 두려움에 대한 이해는 바울이 설명하는 두려움이 구별되는 두 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⁶⁷ 셋째로, 수피즘과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요소라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생활 가운데 윤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여기는 점도 유사하다.

그러나 알 가잘리와 바울을 통해서 살펴본 수피즘과 기독교의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이해에는 차이점도 분명히 나타났다. 첫째로, 알 가잘리는 두려움을 희망과 한 쌍으로 설명하였다. 비록 바울도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있는 희망 또는 소망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지만(예를 들어, 롬 5:2; 8:24; 12:12; 15:4, 13; 고전 13:13; 15:19; 고후 1:7, 10; 3:12; 갈 5:5; 엡 1:18; 4:4; 골 1:5; 살전 1:3; 5:8; 딤후 4:10; 딤후 1:2; 3:7 등), 그것을 두려움과 한 쌍으로 설명하

67 Ibid., pp.9-10.

지는 않는다. 바울이 설명하는 소망이 종말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현재에 주어진 과정을 잘 감당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알 가잘리의 소망과 유사한 점도 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수피즘에서처럼 “죄 사함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전 15:19-22). 둘째로, 알 가잘리는 희망과 두려움이 우열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 대신 희망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른 신자들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자신의 편지에 권면한다(고후 7:1).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해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간직하고 영위해야 하는 태도이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설명한다(롬 3:18).

VI. 나가는 말

본 고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수피즘과 기독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이면서, 그것이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실천적인 부분에서 동기를 제공한다. 이 두려움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며, 이 두려움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현재를 사는 방향성과 윤리에 대한 교훈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협력을 제안하는 볼프의 주장은 종교를 개인적인 것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이해하려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경종을 울린다.⁶⁸ 또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공공선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볼프의 제안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슬람 가운데에서 내면세계에 집중하고, 개인적인 목상을 중요시하는 수피즘은 종말론적 심판자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하며, 이 두려움은 막연히 미래에 대한 소극적 기다림이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제공한다. 이슬람 율법이 무슬림의 곁에 드러난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수피즘과 구별되지만, 아울러 수피즘은 내면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개인이 혼을 정화하고 신을 찾아가는 학문이 수피즘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알 가잘리의 『종교학의 소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보기에 신자의 바람직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신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라는 안네마리 쉴멜의 설명은 적절하다.⁶⁹ 수피즘의 종말론적 이해는 현재의 윤리의 뼈대와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피즘과 기독교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비슷한 면모를 지니고 있고, 이는 서로 다른 두 영역이 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논의하였듯이, 수피즘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이해 가운데에서는 분명한 차이도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궁극적으로는 극복해야 하는 요소로 이해하는 수피즘과, 믿는 자들의 필수적인 요소로 끝까지 견지해야

68 볼프는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신념은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종교는 개인화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Volf(2016), pp.319-320.

69 Schimmel(2006), p.159.

한다고 이해하는 기독교에는 분명히 이해의 간극이 존재하였다. 이 간극은 비단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곧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미래의 죄사함에 대한 희망을 같이 견지해야 하는 수피즘과 이미 죄사함을 받은 상태로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이해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두 집단의 협력 과정에 새로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수피즘과 기독교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분명히 인식할 때에만 두 그룹 간의 진정한 대화와 협력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공일주. 『이슬람의 수피즘과 수쿠크』 (서울: CLC), 2011.
- 김용선 번역. 『코란 (꾸란)』 (서울: 명문당), 2019.
- 김아영. “이슬람의 신비적 측면: 수피즘(Sufism)의 현대적 이해.”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13, no.1 (March, 2020): 7-51.
- 김중순. “신앙과 종교의 긴장관계로서 수피즘.” 『수피즘: 실크로들을 읽는 문화코드』 (서울: 소통), 2016.
- 볼프, 미로슬라브. 『알라: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은가?』. 백지윤 옮김 (서울: IVP), 2016.
- 이슬람 국제 출판국. 『코란』 (서울: Po Chin Chai Printing), 1988.
- 섬멜, 안네마리. 『이슬람의 이해』. 김영경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6.
- Al-Ghazālī. *MUKHTAṢAR: ihyā' ulūm ad-dīn*, Markan Khalaf ed., trans., 2nd ed. (Lympia/Nikosia, Cyprus: Sphor Publishers), 2014.
- Balz, H. and G. Wanke. “φοβέω, φοβέομαι, φόβος, δέος.” Gerhard Kittel and Gerhard Friedrich eds., Geoffrey W. Bromiley tran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9 vol (Grand Rapids: Eerdmans), 1976.
- Barth, Karl. “Biblical Questions, Insights, and Vistas.” In *The Word of God and the Word of Man*, trans. Douglas Horton (New York: Harper), 1956.
- Becker, Joachim. *Gottesfurcht im Alten Testament*. Analecta Biblica 25 (Rom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65.

- Fuhs, H. F. “יָרָא.”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eds., John T. Willis et al. tran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6 vol (Grand Rapids: Eerdmans), 2006.
- Hillenbrand, Carole. *Islam: A New Historical Introduction* (London: Thames & Hudson), 2015.
- Kim, Euichang Kim. *The Fear of God in 2 Corinthians 7:1: Its Meaning, Function, and Eschatological Context*, Library of New Testament Studies 605 (London: T&T Clark), 2019.
- McCarthy, Richard J. *Freedom and Fulfillment: An Annotated Translation of Al-Ghazali's al-Munqidh min al-dalal and Other Relevant Works* (Boston, MA: Twayne Publishers), 1980.
- Plath, Siegfried. *Furcht Gottes: Der Begriff yār'a im Alten Testament* (Stuttgart: Clauer Verlag), 1963.
- Porter, Stanley E. “Fear, Reverence.” Gerald F. Hawthorne and Ralph P. Martin eds.,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3.
- Ritter, Hellmut. *Studien zur Geschichte der islamischen Frömmigkeit*, *Islamica*, xiv (1925): 1–54.
- Ryken, Leland. “Fear.” Leland Ryken, James C. Wilhoit, and Tremper Longman III eds., *Dictionary of Biblical Imager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8.
- Silva, Moisés. “φόβος.” Moisés Silva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 of New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4 vol (Grand Rapids: Zondervan), 2014.
- Smith, Margaret. *Readings from the Mystics of Islam* (Westport, CN: Pir Publications), 1994.
- Stähli, H. P. “אִרְאֵה.” Ernst Jenni ed., with assistance from Claus Westermann, Mark E. Biddle trans.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2 vol (Peabody, MA: Hendrickson), 1997.
- The Study Quran: A New Translation and Commentary*, edited by Seyyed Hossein Nar (NY: HarperOne, 2015).
- Ünal, Ali. *The QUR'ĀN with Annotated Interpretation in Modern English* (NJ: The Light), 2006.
- 김선영.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에 ‘코로나 블루’ 급증…정신과 전문의가 알려준 극복 비결.” 중앙일보. https://jhealth-media.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21636. 검색일: 2021년 1월 23일.
- 배승민. “코로나블루 시대, 심리방역을 위한 9계명.” MedicalTimes.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37402>. 검색일: 2021년 1월 23일.
- 이소연. “코로나 블루, 명상으로 힐링…비즈니스 효율성 높여.”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3/2020120302556.html. 검색일: 2021년 1월 23일.
- 임지영. “코로나 블루 극복! ‘명상’으로 마음 챙김 하세요.” 서울시 뉴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85069>.

검색일: 2021년 1월 23일.

최시웅. “코로나블루 이어 이젠 코로나레드 현상 ‘분노감이 치민다.’” 영남일보.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121010002810>. 검색일: 2021년 1월 23일.

“국민 40.7% 코로나19로 우울, 불안 경험!” Medical News. <https://mdon.co.kr/mobile/article.html?no=30024>. 검색일: 2021년 1월 23일.

Rae Jacobson. “How Mindfulness Can Help During COVID-19: Tips for calming anxiety during a difficult time.” Child Mind Institute. <https://childmind.org/article/how-mindfulness-can-help-during-covid-19/>. 검색일: 2021년 1월 23일.

Shumaila Hemani, “As a Sufi singer, I believe the sounds of world religions can cultivate compassion during COVID-19.” The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as-a-sufi-singer-i-believe-the-sounds-of-world-religions-can-cultivate-compassion-during-covid-19-138045>. 검색일: 2021년 1월 23일.

“UN culture agency celebrates life of poet, philosopher and spiritual leader Rumi.” UN News. <https://news.un.org/en/story/2007/09/230372-un-culture-agency-celebrates-life-poet-philosopher-and-spiritual-leader-rumi>. 검색일: 2021년 1월 23일.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Fear
of God in Sufism and Christianity
: Based on the Understandings of
Al-Ghazali and Paul

Eui Chang Kim

Miroslav Volf suggests that the common idea of the fear of God can motivate both Muslims and Christians to pursue common goo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the fear of God in Sufism and Christianity, by comparing the understanding of the fear of God in the writings of Al-Ghazali and Paul. This comparative study will enable us to evaluate Volf's suggestion and underst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understandings of Sufism and of Christianity.

On one hand, there are clear similarities between Al-Ghazali and Paul's understanding of the fear of God. Both explain it as the appropriate attitude of believers, and this fear derives from an eschatological perspective, that is, the understanding of God as the eschatological judg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differences between Al-Ghazali and Paul. Al-Ghazali argues that believers are to overcome fear and focus more on hope. However,

Paul does not understand the fear of God as something to overcome. Rather, he argues that all believers should possess it. Only with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understanding of the fear of God in Sufism and Christianity can there be a true dialogue between the two groups.

Keywords: Sufism, Al-Ghazali, Paul, Fear, Hope, Reverence, Eschatology